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418호
- 다. 제출일자: 2021. 5. 25.
- 라. 회부일자: 2021. 5. 31.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공사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출자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710억원
 - ①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2단계): 672억원
 - ②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 38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소계	기출자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1,976	186	234	140	710	706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1,764	86	160	140	672	706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	212	100	74	-	38	-

나. 출자 필요성

- 집단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및 서울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서울에너지 공사의 핵심 수행사업임
- 서울시는 '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추진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립 추진을 위해 '19년부터 출자중이며 '22년도에도 출자하고자 함.
 -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2단계 총사업비 3,528억원의 50% 1,764억원 연차별 분할 출자 중
 - ※ 시의회 출자 동의 2회(제287회 '19.6월/ 제295회 '20.6월)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1년에 계획된 월평 염해농지(34MW) 1개 사업을 사업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22년으로 이월하여 출자하고자 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② ~ ③ <생략>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출자동의안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공사 사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서울시는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게 2019년(추경)부터 2024년까지 2,425억원(현금 1,976억원, 현물 449억원)을 연도별로 분할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출자 관련 규정과 규모 및 필요성 등에 동의하여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음.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 출자 계획 및 시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19년 (추경)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서남집단 에너지 시설건설	총 투자계획	3,528	86	555	732	885	1,270	-
	시 출자계획	1,764	86	555	732	391	-	-
	실제 출자금	1,764 (예정)	86	160	140	672 (예정)	706 (예정)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계획	1,068	219	183	109	132	255	170
	시 출자계획	212	100	74	38	-	-	-
	실제 출자금		100	74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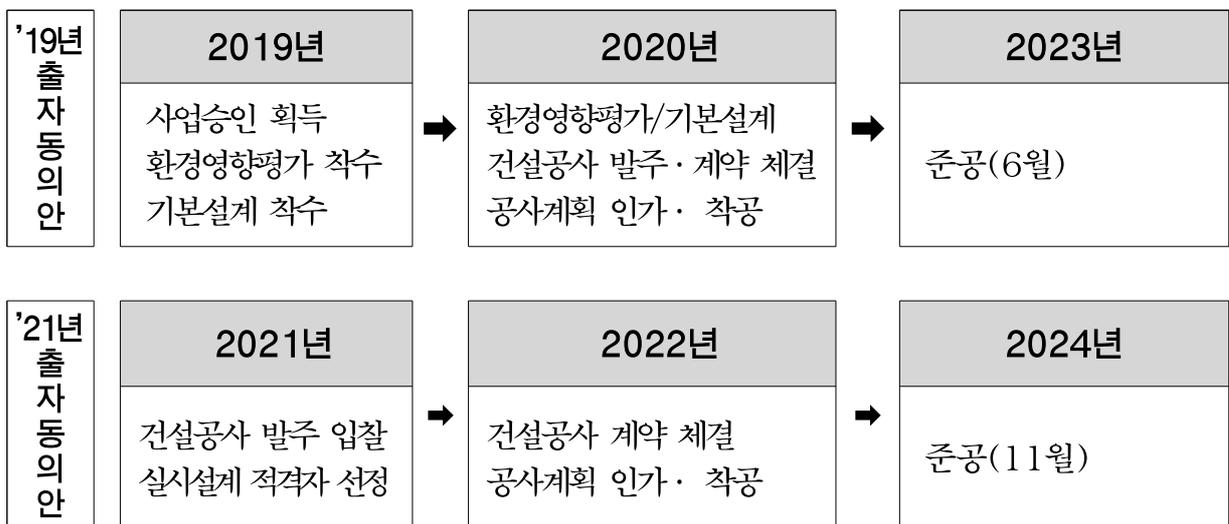
-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자 총액을 일괄로 동의하는 것 대신 매년 해당연도 출자액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19.12월)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5월에 2021년 출자금 555억원에 대해 출자동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2022년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출자금 672억원과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출자금 38억원 등 총 710억원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따른 총 출자 규모는 1,764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어 별도 의견은 없지만, 기출자 계획 대비 실제 출자는 23.3% 수준에 지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사업 지연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백연(흰색 연기)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기술을 적용하고 현행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통함으로써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관련 출자동의안 출자 계획 및 시행 변경 현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전라남도 영광군 야월리 월평 염해농지에 3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당초 2021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추진 정도를 감안하여 2022년으로 순연하여 추진하는 것임.

최근 보도에 따르면 농지를 발전소 부지로 전환함에 따라 농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와 소작농들의 농지 부족 사태를 염려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전남 나주시 의회에서는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의 염분농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